

美·日 工業所有權研修團 귀국

세미나·訪問·見學 통해 結實 풍성

美國과 日本企業의 特許管理 상황과 特許制度를 익히 工業所有權의 國際化에 對備한 知識습득의 契機를 마련하고자 파견한 本會 美·日 工業所有權 研修團(團長 金寬衡 研修部長의 11名)이 15日間의 研修를 마치고 지난 10日 무사히 귀국했다.

지난 5월 27일부터 實施된 이번 研修는 세미나·訪問·見學 등을 통해 지난 어느 海外研修보다도 폭넓은 知識습득으로 우리나라 企業의 特許管理에 큰힘이 됨은 물론 工業所有權의 美·日 進出을 가능할 수 있는 좋은 契機가 된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研修團長 金寬衡部長은 『15일의 짧은 日程이었지만 美·日의 工業所有權 관련 機關과 先進企業을 訪問, 급변하는 先進國의 特許管理및 工業所有權制度의 重要性을 피부를 느낄 수 있었다』고 研修소감을 밝혔다.

주요 研修日程은 다음과 같다.

- ▲ 5월 27일 : 金浦출발
- ▲ 5월 28일 : 자유見學
- ▲ 5월 29일 : 로스엔젤스출발
→워싱턴도착
- ▲ 5월 30일 : 자유見學
- ▲ 3월 31일 : 特許고등재판소 방문→美國 特許廳 방문→BSK B 세미나
- ▲ 6월 1일 : 리치몬드도착→필

립모리스 見學→리치몬드市廳 및 商工會議所 방문→AT&T 企業방문→CRESTAR BANK 방문

- ▲ 6월 2일 : 워싱턴 출발
- ▲ 6월 3일 : 에디슨기념관 및 포드유물전시관 見學→자유見學
- ▲ 6월 4일 : 디트로이트 출발

- ▲ 6월 5일 : 東京도착
- ▲ 6월 6일 : 日本 發明協會·JAPIO·日本特許協會·日本特許廳방문
- ▲ 6월 7일 : 자유見學
- ▲ 6월 8일 : 도시바 방문
- ▲ 6월 9일 : 미쓰비시금속(株) 방문
- ▲ 6월 10일 : 金浦도착

「發明의 날」法定紀念日 制定시급 發明관계자 連席懇談會후 對政府건의

『發明의 날은 法定紀念日로 制定되어야 한다.』

지난 4月號 本會 會誌에 發明의 날 法定紀念日 制定을 要求하는 總力大特輯 記事가 실리면서 그동안 서서히 일고있던 發明의 날 法定紀念日 制定 要求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發明人과 企業人 사이에 지난 73年 商工의 날에 통폐합되어 자취를 감춰버린 發明의 날을 다시 法定紀念日로 制定해달라는 要求는 知的所有權 開放 壓力이 날로 거세지고, 各種 法定紀念日을 재정비한다는 政府의 發表와 때를 같이하고 있어 言論등 各계의 反應도 好意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따라 本會는 지난 5月31日 發明關係者 連席懇談會를 갖고, 이 會議結果를 中心으로 全國發明獎勵大會 改善方案과 發明의 날의 法定紀念日 制定

을 要求하는 건의문을 特許廳에 제출했다.

發明의 날이 처음 制定된 것은 지난 57年2月6日. 즉우기의 發明日인 5月19日(1441年)을 發明의 날로 制定하고, 5月20日 中央廳 광장에서 第1回 行事を 하였다. 그뒤 發明의 날은 4.19의거와 5.16군사혁명으로 2년동안 중단된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全國的인 行사로 열렸다. 그런데 73年 3月30日부터 이 發明의 날이 자취를 감춰버리고, 82年에야 겨우 特許廳 告示 第82-12號로 생겨난 全國發明獎勵大會로 그 명맥을 잇고 있다.

정작 없어도 될날은 그대로 두고 없어서는 안될 發明의 날을 잃어버려 發明技術立國을 지연시키는 結果를 초래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本誌 4月號 參考〉〈☞〉